

맥주보리·맥아 주산지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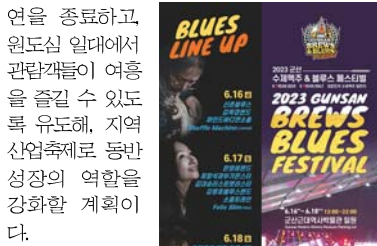
16일부터 18일까지
근대역사박물관 일원서

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축제
가 오는 16일부터 3일동안 군산근대역
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.
군산시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수제맥주
축제에 이어 올해에는 '제2회 2023 군산 수제맥
주 & 블루스 페스티벌'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
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다.
이번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축제에서 즐길
수 있는 모든 맥주가 군산맥아를 주원료로 군산
의 수제맥주 양조장들이 만든 맥주로, 맥주보리와 맥아의 주산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
우리 맥주'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.
올해는 군산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수제맥주 업체까지 군산맥아를 이용한 맥주를 준비해
총 4개의 군산맥주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군산 수제맥주를 선보이게 된
다.



▲보리의 대량 소비처 수제맥주 산업 성장 에 주목하다

군산은 경작지의 90%가 답답으로 주로 미맥류
(쌀보리) 위주의 농업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.
특히,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에
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 작물이다.
그러나 지난 2012년 이후 보리 수매중단으로
안정적인 관료화보가 불안정해 보리재배에 큰
위기가 맞게 되고, 이를 극복하고자 시는 보리
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와 부가치 향상을 위
해 보리 가공사업 육성에 노력해 왔다.
시는 몇 년 전부터 봄이 일고 있는 국내 수
제맥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게 됐다.
국내 150여개 수제맥주 업체가 보리를 싹 띄
운 맥아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,
수제맥주의 주원료인 보리의 대량 소비를 위
해 국내 수제맥주 산업과 지역 농업의 상생 발
전을 시가 선도하고 있다.



군산 수제맥주 & 블루스
페스티벌 포스터

연을 종료하고,
원도심 일대에서
관람객들이 여흥
을 즐길 수 있도
록 유도해, 지역
산업축제로 동반
성장의 역할을
강화할 계획이
다.
시는 올해로 두
번째를 맞는 군
산 수제맥주 축
제가 국내 대표적
인 복합문화컨텐
츠로 인정받고,
축제의 전국화를 목표로 특히, 국내 거주 외국인
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.

▲블루스 페스티벌 출연진들

지난해 파격적인 캐스팅으로 관심을 받은 축
제에서는 올해도 블루스 음악과 접목해 신촌
블루스 등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 16개팀의
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.
특히,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30명이 참여하는
'호원장담' 콘서트를 16일과 17일 90분씩 공연
할 예정이다. 블루스 R&B, 팝 발라드 등 다양
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여 제2의 BTS를 꿈꾸는
지역 학생들의 수준 높은 라이브 연주를 관람
할 수 있다. 또, 직장·동호인밴드 3개팀, 지역
예술인들의 공연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.
먼저 16일에는 신촌 블루스 김명경밴드, 마
인드비디엔소울 Shuffle Machine(일본)의 공연
이 펼쳐진다. 17일에는 한영아밴드, 최항석과
부기문스타, 김대승러스트벤티스타, 김병호블
루스밴드, 소울트레인, Felix Slim(미국)의 공연
이 18일에는 김장훈과 밴드 한국사람, 하현진



수제맥주 & 블루스 페스티벌 홍보



방문객들이 비어포트를 찾아 수제맥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.

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 16개팀의 라이브 공연 예고 지난해와 같이 원도심 일대에서 여흥 즐길 수 있도록 유도 많은 방문객 몰릴 듯... 작년보다 2배인 5000석으로 늘려

밴드, 리치맨과그루브나이스, 타미킴블루스밴
드, 윤병주와 지인들, CROSS(미국)의 공연이 펼
쳐지며 음악애호가들과 블루스 매니아들의 관
심을 받고 있다.

▲안전하고 품격있는 축제 운영

시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행사
장 관람객 동시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
난해 2,500석에서 5,000석으로 늘렸다.

또, 강풍 및 우천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성 강
화와 인파관리 및 혼잡에 대한 관람객 안전관
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.
특히, 맥주 및 음식부스 주문 대기시간을 축
소시키기 위해 맥주추출기 8대, 음식부스 30개
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려 운영할 예정이
다.

또, 맥주쿠폰 자동판매 키오스크 등 결제 시
스템을 증설하고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

해 100%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일회용
컵을 사용해 6개월 후 퇴비화가 가능한 친환경
생분해 일회용컵을 사용한다.

김명준 군산시장은 "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
과 군산의 맥주산업 스토리는 전국 자치단체
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"며 "올해 두
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을 독창적인 로컬문화컨
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 시키겠다"
고 말했다.

한편 지난해 열린 '제1회 군산 수제맥주 &
블루스 페스티벌'은 첫 개최임에도 1만6,700여
명의 방문객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지역 수제
맥주와 블루스 음악을 접목하는 차별성으로
도시브랜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
이 공감하고 있다.

/군산=이재춘기자

